

공립유치원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전북교육청, 단설병설유치원 315교 미래형 환경교육 위한 무선망 설치·노후 케이블 등 교체 지원

전북지역 공립유치원에 무선인터넷 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래형 환경교육을 위한 공립유치원 무선 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무선환경 구축은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보편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학습콘텐츠 사용과 업무시스템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저성은 노후 유선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단설유치원 29개교를 비롯해 총 316개교에 소요 예산은 26억 9,545만원으로 이들 유치원에는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설치하고, 노후된 저성은 유선망 스위치 교체해 기가급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

간에서 원격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초·중·고교에 대한 무선망 구축은 이미 완료됐고, 하반기 공립유치원에 이어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무선환경 구축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책쓰기 프로젝트' 마련

내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전북대학교 도서관(관장 정안성)이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책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북대 도서관이 국가 거점국립대학 도서관으로서 지역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다.
 10명씩 3개 팀으로 나눠 온라인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로 6주 동안 매주 1회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신춘문예 출신 강사가 글을 쓰는 법 지도부터 원고 작성 1:1피드백까지 글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특별 최종 완성된 원고는 전문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책으로 출간돼 도서관 장서로도 등록되는 특전도 주어진다.
 정안성 관장은 "책쓰기 프로젝트는 누구나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글쓰기에 관심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재직동문 교수회, 교비 유학생에 1억원 장학금 기부

해외대학석·박사 합격학생 지원

전북대학교 재직동문 교수회(회장 박종민)가 지난 7일 교비유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 약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1970년대 출범해 현재 400여 명의 교수가 소속돼 있고, 올해 10월 1일자로 박종민 교수(산림환경학과)가 신임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해 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소에도 모교와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다 최근 학생들이 보다 넓은 무대에서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2년간 재직동문 교수회를 이끌다 올 9월 임기를 마친 신기현 교수(정치외교학과)가 모교 출신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느낄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박종민 회장은 "재직 동문 교수들의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더 큰 내비효과를 받아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기에 지난 2년 간 모교인 해외의 일부와 정년퇴임 교수들의 기부금으로 교비 유학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교비유학생은 전북대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 국제협력부에서 선발하고 있는 교비유학생 선발 인원 외 매년 1천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민 회장은 "재직 동문 교수들의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더 큰 내비효과를 받아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기에 지난 2년 간 모교인 해외의 일부와 정년퇴임 교수들의 기부금으로 교비 유학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교비유학생은 전북대 학부를

전북대 김정자 교수 여학생 공학교육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정자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부)가 (사)한국공학교육학회로부터 '여학생 공학교육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상은 한국공학교육학회에서 매년 우수 교육자들을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육부 주관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단장을 역임하면서 여학생 공학교육의 발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멘토링을 성공적으로 수행, 여학생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학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IT) 전북지역사업단 운영위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교육,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대 다방면에 현장 적응 가능한 능력 있는 여성 공학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헌신해왔다. 이외 부회장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능력을 지닌 여교수로서 위상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



영화로 만나는 환경교육

도교육청, '영화로 환경을 만나요! 우리 학급 환경 영화관'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영화를 통한 환경교육에 나선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화로 환경을 만나요! 2021년 우리 학급 환경 영화관'을 운영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교육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비접촉 방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교육 활동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우리 학급 환경영화관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100학급에서 진행된다.
 학급당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학급 실정에 맞는 환경영화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환경영화 관람 및 환경 수업 자료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화 목록 및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환경 수업 단계 예시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영화와 함께하는 교직원 배움과 성정의 날' 지원을 통해 개별학교 교직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00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1편의 환경영화 상영을 지원한다.
 상영작은 ▲10월 27일은 2040(오

스트레일리아, 93분, http://naver.me/xKQmqj41) ▲11월 3일은 플라스틱의 모든 것(미국, 96분, http://naver.me/GhEdgfoz) ▲11월 10일은 위장환경주의(호주, 98분, http://naver.me/G7K001U) ▲11월 17일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프랑스, 56분, http://naver.me/FvnxgWk) 등 4편으로 세계 3대 환경영화제 중 하나인 서울환경영화제 그린 아카이브에 등록된 작품들이다.
 환경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학교는 11~15일까지 위에 기재된 URL에 접속해 신청하고, 학교의 배움과 성정의 날을 활용해 해당 영화 관람 후 환경교육 및 친환경 실천방안에 대한 생각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는 "우리 교육청은 기후위기·환경 재난 시대에 대응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학교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 중심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지역업체 이용 4천억원 경제효과"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학교가 지역업체를 이용하면 4천억원 경제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상상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출마예정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 예산 익산업체 이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이같은 시스템을 14개 시군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면 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도교육청은 2천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만 수행, 여학생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학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IT) 전북지역사업단 운영위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교육,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대 다방면에 현장 적응 가능한 능력 있는 여성 공학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헌신해왔다. 이외 부회장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능력을 지닌 여교수로서 위상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



개 유초중고특수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적용할 경우 수의계약 규모가 4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북교육청은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로 이 출마예정자는 이 예산이 지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쓰일 수 있는 상생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익산의 사례를 참고해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의 '학교예산 지역업체 이용 온라인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북교육장을 지냈으며, 전북민중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후보에 등록해 11월로 예정된 단일화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민 여러분의 속마음 들려주세요'

황호진 전 부교육감,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전북도민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에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해 도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월 한 달간 진행되며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의 SNS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온라인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불통행정'이다"고 지적하며, "우리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전북교육을 통해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민이 원하는 전북교육을 만들 수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전북교육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새로운 전북교육의 방향을 잡아 낼 것이다"며 "한 달여 동안 모인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



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번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소통창구 개설 외에도 'CED교육 전문가 황호진이 찾아갑니다' 교육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자치분권 2.0시대

순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즐거운 순창 여행!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전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council.go.kr>